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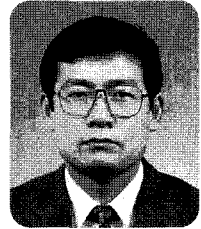
## 친환경 양돈과 돈사시설

### 1. 웰빙에서 로하스로

지금 우리는 웰빙을 넘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로하스를 경험하고 있다.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웰빙과 비슷하지만, 다소 이기적인 개념인 웰빙에 비하여 로하스는 환경을 생각하는 개념을 더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로하스족들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건강에 좋은 상품은 값을 따지지 않고 소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웰빙을 지나 로하스로 이동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 변화는 돼지고기의 생산을 담당하는 양돈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궁극적 목표가 유기양돈이라고 하면, 유기양돈으로 가는 과정에서 친환경 양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환경 양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친환경 양돈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의 양돈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이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과 친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친환경 양돈'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 품질인증, 돼지의 건강, 돼지의 쾌적한 생활 여건, 동물복지 문제, 양돈현장 주변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하는 아주 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김 두 환 교수  
진주산업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것이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친환경 양돈’은 후자의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친화적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생산, 안전성이 입증된 먹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돼지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즉 돼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달리 말하면 친환경 복지 양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돼지의 생활환경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돈사시설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정 사육밀도의 유지, 올인-올아웃, 돼지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작업, 돼지가 사는 공간을 내 집처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양돈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PMWS와 자돈 설사, 호흡기 질병 등에 대한 가장 확

실한 대책 또한 ‘환경의 개선’이며, 환경의 개선은 돈사시설과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환경개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친환경 복지양돈’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복지양돈의 의미는 ‘환경과 친하다’, ‘자연에 가깝다’는 환경친화와 동물복지가 합해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의 생활환경이 동물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에 따라 동물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고 그 결과가 최종 산물인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2. 친환경 복지양돈을 위한 돈사시설

돈사는 돼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이자 관리자에게는 일터이기도 하다. 돈사시설은 돼지의 생활환경을 조절하는 도구로서, 양돈경영에 있어서 생산수단인 동시에 경영조직이다. 따라서 생활환경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시설의 합리성은 생산능률을 좌

■  
■  
■

**생활환경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시설의 합리성은 생산능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돼지의 생활환경 및 관리자의 작업환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환경조절 시설의 합리적 적용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최종 상품인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돼지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복지양돈	유 기 양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밀도 기준 준수</li> <li>• 동물에 대한 5가지 자유 중시</li> <li>• 돈사바닥 틈이 안전할 것</li> <li>• 깔짚 등으로 편안한 잠자리 제공</li> <li>• 제한사육 가급적 억제</li> <li>• 군사 유지</li> <li>• 케이지, 스톨 억제</li> <li>• 충분한 영양, 깨끗한 물 급여</li> <li>•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li> <li>• 외부 공격자로부터 보호</li> <li>• 백신, 치료용 항생제 허용, 성장촉진제 금지</li> <li>• 일반요법에 의한 치료</li> <li>• 단미,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자르기 제한적 허용</li> <li>• 동물 놀이시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업의 일부분으로 토양과 연계</li> <li>• 자유 방목, 동물복지 보장</li> <li>• 엄격한 수용밀도 준수</li> <li>• 콘크리트 바닥 금지</li> <li>• 편안한 잠자리</li> <li>• 제한사육 금지</li> <li>• 군사유지</li> <li>• 케이지, 스톨 금지</li> <li>• 유기사료 100% 급여</li> <li>• 보조사료는 자연산 등 급여</li> <li>• 백신,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금지</li> <li>• 자연요법에 의한 치료</li> <li>• 자연교배 권장</li> <li>• 단미, 거세, 부리자르기 등 억제</li> </ul>

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돼지의 생활환경 및 관리자의 작업환경을 결정짓는, 즉 돼지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특히 돼지가 가진 유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환경조절 시설의 합리적 적용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최종 상품인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양돈경영 기술은 집약화 되어 왔는데, 양돈장 관리의 집약화 추세는 돼지에 주어지는 거의 모든 환경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무창돈 사라는 적극적인 환경조절형 돈사시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돼지의 요구는 대부분 무시된 채 경제성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이러한 규모확대와 집약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돈사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이제는 친환경 복지양돈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양돈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친환경

복지양돈으로 본다면, 친환경 복지양돈시스템을 위하여 돼지의 생활환경을 제어할 돈사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돼지가 요구하는 영양, 생리, 건강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마시기 위한 물은 물론 몸을 씻고 놀이 등에 이용되며 온도, 위생, 신선도가 유지되는 물의 적절한 공급과 적합한 온도, 습도, 풍속 등의 유지와 생활공간 내에 신선한 공기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곧 전 세계 양돈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지, 스톨 사육, 묶어서 고정하는 등 돼지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반 조치를 금지하는 동물복지 법령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환경 제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돼지와 같이 군집성이 있는 동물은 군집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른 돼지와 적절히 접촉과 번식에 적절한 성적접촉이 유지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학



대, 공포와 스트레스의 차단, 육체적인 학대 방지와 상처, 통증에 대한 신속한 대처,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른 공격자와 기생충으로부터 보호,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의 적절한 대처, 돼지의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조명의 질과 햇빛, 조명시간과 일조량, 그리고 돼지의 생활사 각 과정에 주어질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 또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을 열거하였지만,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돈사시설과 돼지의 생활공간에 반영되어야 친환경 복지양돈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 3. 친환경 복지양돈과 유기양돈

친환경 복지양돈을 자연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넓은 토지가 요구되니 우리와 같이 토지가 제

약된 나라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친환경 복지양돈은 그 이상이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였던 작은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돼지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관행 양돈시스템과 친환경 복지양돈, 목표지점인 유기양돈시스템의 간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시급하게 접근해야 할 “친환경 복지양돈시스템”을 위한 돈사시설이 갖추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돼지고기 생산자와 관련업계 및 소비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시키고 개선하는 사회운동 또한 필요하며, 돼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와 기술개발 및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돈**